

기차타고 템플스테이와 힐링을 동시에

문화사업단 · 통도사 · 조계사 · 코레일, 업무협약 맺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통도사, 조계사, 한국철도공사는 4월 18일 템플스테이와 사찰 힐링캠프 철도 연계 상품 협약을 체결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의 힐링프로그램을 연계한 철도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 한국철도공사(사장 정창영, 이하 코레일)은 4월 18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템플스테이 연계 기차여행상품 개발 협약'과 '힐링캠프 연계 상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KTX역의 연계사업, 템플스테이 참가자 대상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힐링캠프 연계상품 개발 협약'을 통해서 조계사, 통도사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이 진행하고 있는 '힐링캠프'와 연계한 기차상품이 개발되며, 향후 코레일은 캠프 참가자들에게 운임할인 서비스와 KTX역과 사찰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문화사업단과 코레일은 템플스테이의 접근성을 높일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은 지난해부터 코레일 주요 상품인 '내일로 티켓' 구매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권 증정 이벤트를 펼쳐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찰과 주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향후 템플스테이 연계 기차여행상품을 통해 국내 철도 여행객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파라미타, 한일청소년 교류활동 갖는다

8월 2~6일 일본 묘법사서 템플스테이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8월 2~6일까지 일본 청소년과 교류하는 '제8회 한일청소년교류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 청소년 20명과 인솔자 및 통역담당 5명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사찰 묘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

고 일본 전통문화 및 놀이 체험활동, 일본 가정 홈스테이 등을 체험하게 된다. 참가 희망학생은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를 참조한 후 4월 28일까지 파라미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02)723-6165

이나는 기자

보리수 아래, 5월 9일 시낭송·노래공연

오후 7시 전통문화공연장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장애불자들이 모여 시낭송과 음악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인다. 장애인과 스님, 불자, 예술인들이 모여 활동하는 '보리수 아래' (회장 최명숙)는 5월 9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을 개최한다.

보리수아래와 니르바나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2008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 즈음해 열렸으며 올해로 6회를 맞는다. '당신이 희망이요 행복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시낭송과 음악, 대금, 난타, 마인 등이 진행된다. 또 보리수아래 회원들이 시를 액자로 만들어 공연장 앞에서 전시를 열 계획이다.

이나는 기자

'뽕뽕 캠프' 오세요... 고통 끝 행복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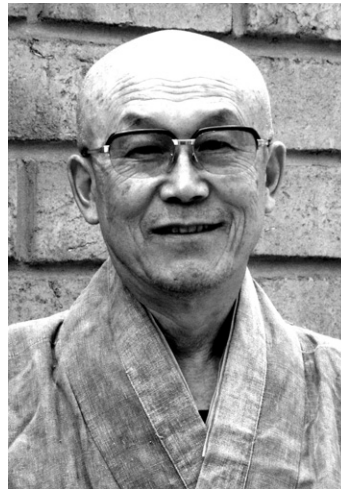
활인선원, 4월 26일부터 정기적으로 무료 캠프

경제난과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는 대중의 심신을 치유하는 무료 캠프가 열린다. 안성 활인선원과 제주 원명선원을 이끄는 선원장 대호 스님은 4월 18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통에 신음하는 한국사회와 구성원들의 '고통을 끝내고 행복을 얻어가자'는 취지로 고(苦)뽕 치유 캠프를 연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뽕뽕 치유캠프'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을 모토로 우리 사회에서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정불화나 갈등으로 어려움과 행복을 기억할 수 없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들을 보듬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자, 그들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성찰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캠프는 비(非)불자 등 일반인들을 위해 무료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부터 원명선원과 2008년부터는 활인선원에서 청소년, 청장년, 노년층 대상으로 진행해온 선회와 수련회, 단기출가를 통해 고(苦)의 실상을 살펴보고 스스로 사회적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을 사회화해 체험과 함께 더욱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호 스님은 고행 치유캠프를 통해 신불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종교와 불교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 캠프 첫날에는 스벗어나는 마음 다가서는 기쁨(습의 및 오리엔테이션) △만족함



제주 원명선원과 안성 활인선원 선원장 대호 스님.



대호 스님이 안성 활인선원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참선과 단식을 병행한 수련회와 단기 출가를 열고 수련생들을 지도 하고 있다.

귀족들이 주로 믿는 종교였다. 이런 시기에 원호 스님은 전국을 돌며 아마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외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며 "고행 치유캠프도 불교 용어 대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해 대중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행 치유캠프'는 참여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개방된 프로그램으로 2차 3일간 진행된다. 20세부터 59세까지 남녀 연령대별 20명씩 40명 선착순으로 모집해 참가자 전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1차 캠프는 4월 26-28일 20-39세를 대상으로, 2차 캠프는 4월 29일-5월 1일 40-59세를 대상으로 활인선원에서 진행되며 8차까지 캠프 일정이 잡혀 있다. 캠프 첫날에는 스벗어나는 마음 다가서는 기쁨(습의 및 오리엔테이션) △만족함

을 이제 알겠어요(저녁 예불) △고행 출발! 그대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요(대호 스님 법문 및 강의)로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나를 향해 다가가는 아침예불 △요가 △누구나 고행이 있어요. 본래 나를 못 벗어나 요(영상 청법 좌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보행 정리) △누구를 위해 사는가(강의 또는 청법좌선) △유유자적의 심신을(울력 또는 청소) △거룩함이 우리 자신에게도(헌공) △이유 없이 쓰는 마음(지혜의 법문) △숲속의 향기(보행 및 산행) △나는 정말 행복해, 미처 몰랐군(영상청법 좌선) △108매 및 저녁공양과 예불 등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소감발표와 회향식을 갖는다.

조사선품을 진작시키고 있는 대호 스님은 "'고통을 없앤다'라는 말은 틀렸다. 고통은 원래 없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고(苦)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방편상 '고행'으로 프로그램명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대호 스님은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40여년간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청장년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정선문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참선수행을 지도해 왔다. 또한 지난 2008년 대중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활인선원을 개설해 참선과 단식을 병행한 수련회와 단기 출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

대호 스님은 "고통을 끝내고 행복을 얻어가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모든 문은 열려 있다. 두드리지 않으면 된다. 그냥 열려 있다"며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삶의 새로운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1644-5266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 콘텐츠 잘 보존하고 기록해야"

대불련, 제2회 공청회 열어...동문들 방안 모색

"대불련 법우들이 사회에 나가 각계 각종에서 역사 속 불교에 관련된 자료를 취합·정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공주지부 지도법사 해월 스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인 '선재! 불타의 길을 묻다'의 두 번째 공청회가 4월 12일 전법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현직의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각 단위의 동문들이 모여 현재 대불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각 단위에서 맡아갈 수 있는 역할 등을 논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대불련 공주지부 지도법사 해월 스님은 '한국불교를 생각한

다'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공주지역을 알리는 공주시 팸플릿에 천주교 관련 문화지는 천주교 성지로 소개되는 반면 사찰은 명산순례로 표기돼 있다. 이는 정보와 자료를 잘 남기고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며 "이것은 종교 차별의 문제라기보다 불교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취합해 공공기관과 협조하는 역량 부족의 사례이다. 앞으로 대학생 불자들이 각계 각층에 나아가도 불교신자로서 불교 콘텐츠를 잘 보존·기록해 역사의 사료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불교학 생회 동문회장 김관태씨는 "현직 지도위원 단 및 간사들이 대학 포교의 전문인력으로 지속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



대불련은 '선재! 불타의 길을 묻다'의 두 번째 공청회를 4월 12일 전법회관에서 열었다.

동문회에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불련 동문들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통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힘을 모으는 것이 50주년을 앞둔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했다.

대불련 총동문회 김윤권씨는 "동문들의 통합 없이는 대불련은 더 이상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현재 동문회가 다분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 대불련 중앙회장(2012년) 최경환씨는 "통합을 많이 주장하지만 사분오열된 채 화합하지 못하는 현 동문 선배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중심으로 통합되기를 많이 주장하는 것 같다. 하나 포교의 중심은 대학생이며 50주년을 앞둔 지금 대학생, 대불련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것이 남은 과제일 것"이라며 대학생과 현직 활동가 중심의 통합을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 1.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 2. 대장부 범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